

MMPI의 긍정왜곡에 대한 연구 —타당도 척도와 모호 명백 문항을 중심으로—

박기환·안창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L, K, F-K, L+K 등의 타당도 척도 관련 탐지지표들과 Wiener(1948)의 명백척도(WO), 모호척도(WS), 명백척도-모호척도(WO-WS)와 박기환, 이미정, 안창일, 김연(1990)의 명백척도(MO), 모호 척도(MS), 명백척도-모호척도(MO-MS)를 사용하여 MMPI의 긍정왜곡 반응을 탐지해 내고자 시도하였다. 긍정왜곡 프로파일은 V자 형태의 타당도 척도를 보였으며, 다른 척도에 비해 척도 5(Mf)와 척도 9(Ma)는 가장 높게 올라가고 척도 0(Si)은 가장 낮게 떨어졌다. 이는 다른 신경증 척도와 정신병 척도가 긍정왜곡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지는 것과 관련된다. WS와 MS를 제외한 나머지 탐지지표들은 긍정왜곡을 효율적으로 탐지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었다.

Greene(1980)은 MMPI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 태세(response set)로서 긍정왜곡(faking good), 부정왜곡(faking bad), 전부 그렇다(all true), 전부 아니다(all false), 무선반응태세(random response set), 전부 이탈된(all deviant), 혹은 전부 이탈되지 않은(all nondeviant) 반응태세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흥미와 관심을 끌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온 반응태세는 긍정왜곡과 부정왜곡일 것이다. 이는 아마도 다른 반응태세보다 이들 왜곡반응태세를 탐지해내기 어렵다는 점과 실제 장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긍정왜곡이란 심리적 증후군(psychological symptomatology)을 부인하거나 줄여서 보고하려는 고의적 혹은 무의식적 노력을 말하고, 부정왜곡

이란 실제 경험되는 것보다 더 과장된 증후군을 보이려는 의식적, 무의식적 시도를 말한다(Archer, Gordon, & Kirchner, 1987). 이와 같은 왜곡은 MMPI의 임상프로파일을 왜곡하게 만드는데, 이런 왜곡의 정도는 피검사자의 역할취하기(role-taking)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이때 역할취하기 능력이란 타인의 관점에서 사물을 대하고 상황을 판단하며 그때의 느낌이나 감정, 반응등을 공감하고 추측할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미정, 1983).

정신질환자에게는 역할취하기 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따라 배정규, 안창일, 김중술(1986)은 정상인의 부정왜곡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정신질환자가 역할취하기 능력이 없다면, 왜곡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두가지 밖에 없는데, 하나는 정상인에 의한

공정왜곡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정상인에 의한 부정왜곡반응이다. 정상인의 부정왜곡반응은 다른 정신질환자들과의 변별을 위하여 임상장면에서 더 중요한 반면, 정상인의 긍정왜곡반응은 취직이나 학생생활연구소에서의 검사와 같은 사회의 일반적 상황에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반응 왜곡 태세들을 탐지해 냄으로써 임상 프로파일을 해석할 때 더 주의하면서 신중하게 임할 수 있게 된다.

부정왜곡탐지에 비해 긍정왜곡탐지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는데(Dies, 1968; Vesprani & Seeman, 1974; Wales & Seeman, 1968), 본고에서는 긍정왜곡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많이 언급된, 기본 타당도척도 중의 L, K척도와 그 결합(combination) 중 F-K지수, L+K지수, 그리고 모호, 명백 척도를 사용하여 긍정왜곡 프로파일을 탐구하고 표준(standard)반응 프로파일과 어느 정도의 변별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려 한다.¹⁾ 특히 모호, 명백 척도에서는 Wiener(1948)의 모호, 명백 척도(이하 WSO라고 명명)와 박기환, 이미정, 안창일, 김연(1990)에 의해 수정된 모호, 명백 척도(이하 MSO라고 명명; 부록 참조)의 긍정왜곡 탐지의 효율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탐구될 긍정왜곡 탐지 지표들의 기원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L척도는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신을 호의적으로 나타내려는 세련되지 못한 시도를 주로 탐지하는 타당도척도로서 사용되어 왔다(Meehl & Hathaway, 1946). Lachar(1974)는 높은 L척도의 점수가 좋은 인상을 주려하고 결점을 부인하려는 의식적 시도일 수 있다고 보았다.

Wiggins(1959)는 L척도상의 원점수가 6 이상이면 긍정왜곡을 의심해야 한다고 했으며 Boe와 Kogan(1964)은 L척도상의 원점수가 9 이상이면 긍정왜곡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K척도는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어성과 경계심을 측정하기 때문에 L척도가 측정하는 행동의 일부와 중복이 되지만 L척도보다는 매우 은밀하게 그리고 세련된 사람들에게서 측정한다는 점이 다르다(김중술, 1988). 높은 K점수는 방어적 태도의 지표이고 낮은 K점수는 비밀상적인 솔직함이나 자기-비판적 성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양 극단은 각각 긍정왜곡과 부정왜곡으로 불릴 수 있다(McKinley, Hathaway, & Meehl, 1948). Wiggins(1959)는 K척도상의 원점수 22 이상이, Boe와 Kogan(1964)은 K척도상의 원점수 17 이상이 긍정왜곡의 분류점수(cutting score)라고 했다.

Gough(1947, 1950)는 F척도상의 원점수에서 K척도 원점수를 뺀 것에 기초한 지수의 사용을 제안했는데, F-K지수는 F나 K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정상 프로파일과 가장된 프로파일을 구별해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Hunt(1948)는 F척도상의 원점수와 K척도상의 원점수 간의 차이가 -11 이하이면 긍정왜곡으로 볼 수 있지만 정상 프로파일과 긍정왜곡 프로파일의 분포가 상당히 중복되기 때문에 부정왜곡에 비해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Grow, McVaugh와 Eno(1980)는 $F-K \leq -11$ 을 사용하여 긍정왜곡을 잘 탐지할 수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F와 F-K원점수 평균이 미국과 다른데, F-K원점수 평균이 미국인은 -9점 정도(Gough, 1950) 혹은 -10.53점(Osborne, Colligan, & Offord, 1986)인데 비해 한국인의 경우는 -2점 정도(정범모, 이정균, 진위교, 1965) 혹은 -0.4점(배정규 등, 1986)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F-K지수를 우리나라에서 부정왜곡지표 또는 긍정왜곡지표로 사용할 때는 그 점수를 다소 상향조정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1) Cofer, Chance, and Judson(1949)의 Mp척도, Hanley(1957), Edwards(1957), Wiggins(1959), Messick(1960) 등의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척도들이 긍정왜곡탐지를 위해 계속 제안되었지만 후속 연구결과들이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지 못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지 못한 듯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척도들은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로 보인다(김중술, 1988).

Cofer 등(1949)은 건강한 정상인으로 꾸미려고 시도하는 학생들은 L+K지수에 의해 탐지될 수 있다고 했으며 L+K값 67이상을 제시했다.²⁾ 그러나 Wiggins(1959)와 Exner, McDowell, Pabst, Stackman과 Kirk(1963)은 L+K지수가 긍정왜곡 탐지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Grow 등(1980)은 Cofer 등(1949)의 값 34이상을 적용하여 표준지시문과 긍정왜곡 지시문을 잘 구별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³⁾

Wiener는 MMPI문항들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정서적 장애를 나타내는 것으로 비교적 쉽게 탐지될 수 있는 문항을 명백문항(O items)으로, 정서적 장애를 나타내는 것으로 탐지하기에 비교적 어려운 문항을 모호문항(S items)으로 분류해 냈다. 이 절차를 통해임상척도 중 다섯 척도(척도 2, 3, 4, 6, 9)에서 110개의 모호문항과 146개의 명백문항을 분류해 냈는데 이들 문항들은 다섯 척도 각각에서 모호, 명백 하위척도로 나누어진다(Greene, 1980).

2) Cofer 등(1949)의 연구에서 L+K 지수의 분류점수는 L은 원점수로 K는 T점수는 계산하여 두 척도점수의 합으로 결정된 것이다.

3) Grow 등(1980)의 연구에서는 Cofer 등(1949)이 제시한 L+K 지수의 긍정왜곡 분류점수를 34로 보았는데, 아마도 L척도의 원점수와 K척도의 원점수를 합한 점수라고 생각되지만 Cofer 등이 34라는 분류점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4) Wales와 Seeman(1968)의 모호, 명백 문항은 Wiener(1948)의 정의와는 다소 다른데도 Grow 등(1980)이 같은 것으로 취급하여 연구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는 Wiener의 모호, 명백 문항을 대상으로 고찰할 것이므로 Wales와 Seeman, 그리고 Grow 등의 분류점수는 단지 참고 자료로서만 사용되고 Greene(1988)의 분류점수만 본 연구와 직접 관련된다.

5) 비교자료로 쓰일 공무원시험에 지원한 일반인의 자료와 유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취직시험에 지원하는 상황을 긍정왜곡 지시문으로 택했다. 결과적으로는 Harvey와 Sipprelle(1976)의 긍정왜곡 지시문과 유사한 상황이 지시문으로 주어졌다.

6) 공무원 시험에 지원한 일반인의 자료는 비록 표준지시문에 따라 수행된 것이긴 하지만 긍정왜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주어진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대부분 연구들이 부정왜곡을 탐지하는 척도나 지표의 발달에는 성공적이었지만 긍정왜곡의 지표를 발달시키는 데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였는데, 모호, 명백 문항이 특히 긍정왜곡 탐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었다(Greene, 1980; Wales & Seeman, 1968). Gloye와 Zimmerman이 1967년 모호, 명백 문항에서 긍정왜곡 효과를 처음으로 연구한 이후(Dubinsky, Gamble, & Rogers, 1985), 모호, 명백문항이 긍정왜곡 탐지에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Greene, 1980, 1988; Grow, et al., 1980; Hiner, Ogren, & Baxter, 1969; Wales & Seeman, 1968).

Wales와 Seeman(1968)은 명백문항에서 모호 문항을 뺀 값(O-S)-4 이하를 긍정왜곡의 분류점수로 제안했고, 명백문항(O) 65 이하와 모호문항(S) 61 이상을 분류점수로 제안했다. Grow 등(1980)은 Wales와 Seeman(1968)의 분류점수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O-S점수와 명백문항 점수가 긍정왜곡 탐지에 유용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Greene(1988)은 106개의 외래환자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긍정왜곡 집단을 O-S점수 -8 이하로 분류하였다.⁴⁾

본 연구는 긍정왜곡 탐지에서 타당도척도 L, K와 타당도 척도의 결합인 F-K 및 L+K 지수, 그리고 Wiener(1948)의 모호척도(이하 WS로 명명), 명백 척도(이하 WO로 명명) 및 박기환등(1990)의 수정된 모호척도(이하 MS로 명명), 명백척도(이하 MO로 명명)의 탐지지표 가능성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 정상인 집단의 표준지시문에 따른 자료(이하 ST), 대학생 정상인 집단의 긍정왜곡 지시문에 따른 자료(이하 FG)⁵⁾, 공무원 시험에 지원한 일반인의 자료(이하 J)⁶⁾를 비교분석하여 다음의 과제들을 수행할 것이다.

연구문제 1. 몇가지 긍정왜곡 탐지지표들의 유용성 여부를 알아본다. 이를 위해 다음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L, K, L+K, WS, MS점수는 ST보

다 J와 FG에서 더 높을 것이다.

가설 2. F-K, WO, MO, WO-WS, MO-MS 점수는 ST보다 J와 FG에서 더 낮을 것이다.

가설 3. 각 탐지지표 점수들에서 J는 FG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연구문제 2. 각 탐지지표 별로 ST, FG, J의 평균점수의 분포양상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각 탐지지표들의 상호상관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4. 각 탐지지표들과 기본척도들과의 상관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5. 각 탐지지표 별 최적분류점수를 찾는다. 이 때 사용한 준거는 ST와 FG를 분류할 때의 적중율, 즉 ST를 ST로 정확히 분류한 사례와 FG를 FG로 정확히 분류한 사례를 합하여 ST와 FG의 총 사례수로 나눈 수치가 가장 높은 점수를 택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6. 긍정왜곡 탐지의 유용성 측면에서 WSO와 MSO를 비교해 본다.

방 법

피험자 및 절차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212명(남자 106명, 여자 106명)을 대상으로 두 번의 MMPI를 실시하였다. 한 번은 MMPI검사지에 수록되어 있는 표준 지시문에 따라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나타내도록 했으며, 1주일 후에는 긍정왜곡 지시문에 따라 “취직하기 위한 중요한 평가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성격검사에 임하듯이” MMPI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때 실시순서의 효과는 없다는 연구(Cofer, et al., 1949; Gough, 1947; Hunt, 1948; Seeman, 1953)에 근거하여 상채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검사는 수업시간에 집단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표준지시문 하에서의 검사결과를 차후에 알려 주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또한 1990년도 공무원 시험에 지원한 사람들이 면접과정의

일부로 표준지시문에 따라 수행한 MMPI자료 133개 중 129개의 남성자료만을 비교분석에 사용하였다. 여성자료는 4개밖에 되지 않아서 남자들끼리의 비교를 위해 분석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조선미, 박병관, 안창일, 신동균(1990)이 제안한 공식⁷⁾에 의해 타당하다고 보기 힘든 자료를 제외시키고 대학생 209명(남자 105명, 여자 104명)의 표준지시문에서의 MMPI자료와 긍정왜곡 지시문에서의 MMPI자료,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서 면접과정의 일부로 표준지시문에 따라 수행된 129명의 MMPI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피험자 집단의 연령은 대학생 남자가 18세에서 28세까지로 평균 20.87세(SD=2.89)였고 대학생 여자가 17세에서 24세로 평균 19.63세(SD=1.34)였으며, 공무원 시험 지원집단은 모두 남자들로서 17세부터 27세까지 있었고 평균 22.55세(SD=3.35)였다. 대학생들은 모두 학부 재학 중이었으며, 공무원 시험 지원자들은 최소한 고졸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었다.

도 구

566문항으로 된 “다면적 인성검사”(김영환, 김재환, 김중술, 노명래, 신동균, 염태호, 오상우, 1989)가 사용되었다.

채점방법

각 자료에서 임상척도 10개와 타당도척도 3개(L, F, K) 외에 Wiener(1948)의 모호문항110개와 명백문항 146개 및 박기환 등(1990)이 수정 제의한 모호문항 118개와 명백문항 138개를 채점하였다. 박기환 등의 모호문항과 명백문항은 Wiener의 모호, 명백 문항 중 우리나라에서 타당하지 않

7) 판별방정식 $D = -3.22 + 0.12 NF + 0.25 CA + 0.11 TR$ 에서 값이 2.14 이상인 자료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했다. 이 때 NF는 조선미 등(1990)이 새로이 구성한 F척도 문항들의 원점수를 말하고, CA는 부주의 척도, TR은 검사-재검사 지표를 가리킨다.

다고 보이는 문항들, 즉 모호, 명백 차원의 평가가 반대로 되어있는 문항들, 다시 말하자면 Wiener의 척도에서는 모호척도 혹은 명백척도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모호하거나 명백하지 않게 평가된 문항을 정리하여 다소 수정된 모호척도와 명

백척도로 제시한 문항들이다.

결 과

대학생 집단의 표준지시문(ST)과 긍정왜곡 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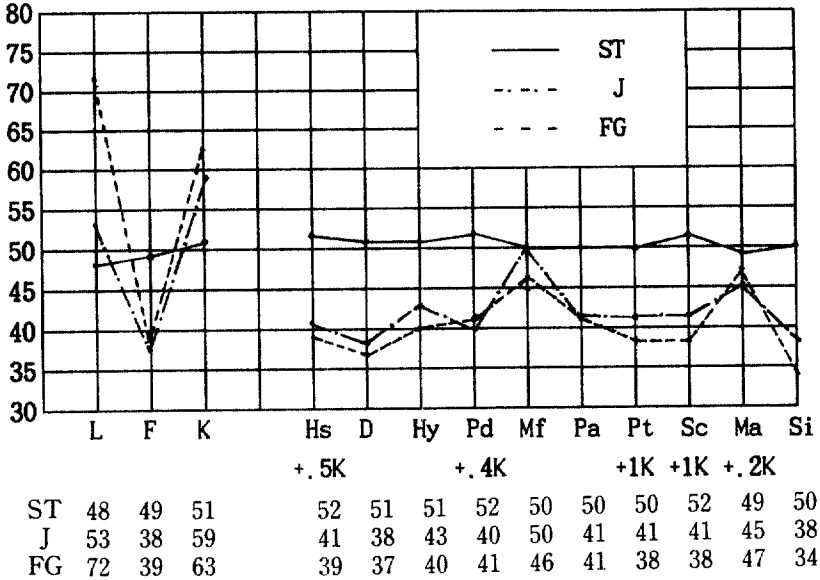
표1. 기본척도의 원점수 평균과 표준편차

	남				여		
	ST (N=105)	J (N=129)	FG (N=105)	F값	ST (N=104)	FG (N=104)	F값
L	3.21 (1.84)	5.67 (2.72)	8.55 (3.01)	112.47**	3.20 (1.74)	7.52 (3.11)	153.03**
F	12.47 (5.30)	5.74 (3.04)	5.74 (2.88)	110.85**	13.19 (5.51)	6.26 (3.84)	110.86**
K	12.35 (4.34)	15.84 (4.94)	17.69 (4.69)	39.97**	12.20 (3.82)	16.88 (4.73)	61.36**
1(Hs)	12.07 (5.26)	4.52 (3.39)	2.57 (3.11)	168.04**	13.36 (5.07)	3.87 (4.91)	188.15**
2(D)	26.89 (5.67)	20.49 (3.71)	18.96 (3.64)	97.74**	29.67 (5.41)	19.91 (4.38)	204.43**
3(Hy)	25.18 (5.26)	19.21 (3.70)	18.76 (3.92)	74.82**	26.86 (5.65)	19.33 (5.45)	95.60**
4(Pd)	23.57 (4.28)	17.09 (3.33)	16.28 (3.78)	120.16**	22.78 (4.38)	16.27 (4.23)	118.82**
5(Mf)	28.25 (4.57)	26.81 (3.73)	26.51 (3.76)	5.70*	34.62 (3.97)	32.79 (3.98)	10.97*
6(Pa)	12.29 (3.93)	9.46 (2.23)	9.20 (2.62)	35.96**	13.07 (3.30)	9.77 (2.45)	67.00**
7(Pt)	20.70 (7.85)	11.02 (5.73)	7.58 (4.58)	129.07**	21.28 (7.38)	9.08 (5.93)	172.53**
8(Sc)	26.83 (9.74)	13.12 (7.06)	9.56 (6.63)	143.04**	27.81 (9.34)	11.51 (8.21)	178.57**
9(Ma)	21.30 (4.05)	18.79 (4.33)	19.36 (3.21)	12.51**	19.74 (4.69)	19.09 (4.10)	1.15
0(Si)	35.36 (8.58)	26.76 (7.47)	22.14 (6.83)	81.14**	36.73 (7.54)	24.23 (7.13)	15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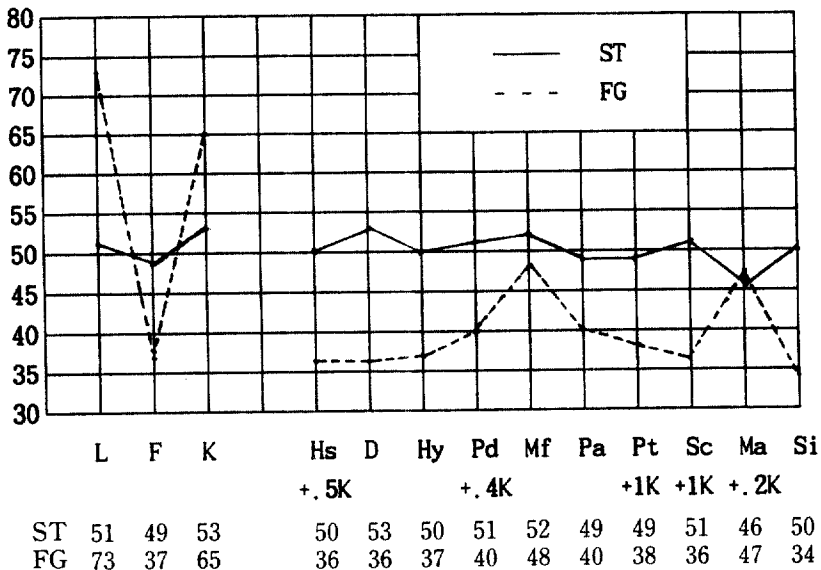
() : 표준편차 * : $p < .01$ ** : $p < .001$

문(FG)에서의 MMPI자료를 남녀별로 비교하였는데, 공무원 시험 지원집단의 표준지시문(J)은 모두 남자들만의 자료이므로 ST와 FG의 남자자료와만 비교분석을 하였다.

표 1에서는 타당도 척도와 임상척도에서의 원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성별, 집단별로 제시하였다.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기본척도를 살펴보면 ST에서 척도 2, 3, 9가 각각 $F(1, 207) =$



<그림 1> 집단별 T점수 평균 프로파일(남자)



<그림 2> 집단별 T점수 평균 프로파일(여자)

13, 23, $F(1, 207)=4.92$, $F(1, 207)=6.59$ 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FG에서 L척도와 척도 1, 7, 0이 각각 $F(1, 207)=5.96$, $F(1, 207)=5.20$, $F(1, 207)=4.17$, $F(1, 207)=4.67$ 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나머지 기본척도들은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남자의 경우, ST와 J, 그리고 FG에 대해 각 기본척도별로 일원 변량분석을 한 후에 Scheffe 사후검증을 한 결과, 모든 기본척도에서 ST와 J, 그리고 ST와 FG는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J와 FG간에는 L척도, K척도와 척도 1, 2, 7, 8, 0에서만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자의 경우는, ST와 FG를 각 기본척도별로 비교하였는데, 척도 9를 제외하고는 모든 척도들이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1과 2에서는 각각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K 교정을 한 기본척도들의 T점수 프로파일을 집단별로 제시하였다.

표 2는 각 탐지지표의 원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성별, 집단별로 보여주고 있다. 남자의 경우, ST와 J, 그리고 FG에 대해 각 탐지지표별로 일원 변량분석을 한 후에 Scheffe 사후검증을 한 결과, F-K지수와 MS척도를 제외한 모든 탐지지표

표2. 각 탐지지표의 원점수 평균과 표준편차

	남				여		
	ST (N=105)	J (N=129)	FG (N=105)	F값	ST (N=104)	FG (N=104)	F값
L	3.21 (1.84)	5.67 (2.72)	8.55 (3.01)	112.47**	3.20 (1.74)	7.52 (3.11)	153.03**
K	12.35 (4.34)	15.84 (4.94)	17.69 (4.69)	39.97**	12.20 (3.82)	16.88 (4.73)	61.36**
F-K	0.11 (8.31)	-10.09 (6.94)	-11.94 (5.55)	91.71**	0.99 (8.03)	-10.62 (7.25)	119.56**
L+K	15.56 (5.47)	21.50 (7.12)	26.24 (.84)	76.90**	15.40 (4.89)	24.39 (7.03)	114.74**
WO	57.01 (17.25)	29.91 (12.02)	22.55 (11.35)	189.50**	58.74 (15.71)	26.43 (15.39)	224.40**
MO	55.33 (16.04)	29.19 (12.82)	22.87 (10.68)	177.60**	56.32 (15.87)	26.64 (14.83)	194.18**
WS	52.09 (8.70)	55.04 (7.95)	59.93 (7.00)	26.40**	53.28 (7.56)	57.82 (7.55)	18.75**
MS	53.76 (8.28)	55.76 (8.57)	59.62 (6.94)	14.59**	55.70 (8.52)	57.61 (8.37)	2.64
WO-WS	4.92 (22.84)	-25.13 (17.81)	-37.38 (15.68)	139.90**	5.46 (18.98)	-31.38 (19.75)	188.15**
MO-MS	1.57 (20.68)	-26.57 (19.42)	-36.75 (14.65)	121.97**	0.62 (20.03)	-30.96 (19.54)	132.47**

() : 표준편차 ** : $p<.001$

표3. 긍정왜곡 탐지지표의 분류점수별 적중율

탐지 지표	남자				여자			
	분류 점수	ST분류율 (%)	FG분류율 (%)	적중율 (%)	분류 점수	ST분류율 (%)	FG분류율 (%)	적중율 (%)
L	4	61.0	95.2	78.1	4	64.4	86.5	75.5
	5	75.2	87.6	81.4	5	77.9	77.9	77.9
	6	89.5	81.9	85.5	6	87.5	71.2	79.4
	7	93.3	75.2	84.3	7	94.2	63.5	78.9
	8	98.1	63.8	81.0	8	99.0	52.9	76.0
K	13	59.0	92.4	75.7	14	66.3	74.0	70.2
	14	66.7	89.5	78.1	15	74.0	68.3	71.2
	15	70.5	79.0	74.8	16	80.8	60.6	70.7
	16	73.3	72.4	72.9	17	87.5	56.7	72.1
	17	83.8	62.9	73.4	18	91.3	52.9	72.1
F-K	-10	87.6	72.4	80.0	-6	78.8	76.9	77.9
	-9	87.6	76.2	81.9	-5	73.1	85.6	79.4
	-8	83.8	82.9	83.4	-4	70.2	87.5	78.9
	-7	79.0	85.7	82.4	-3	67.3	89.4	78.4
	-5	70.5	89.5	80.0	-2	64.4	90.4	77.4
L+K	18	67.6	94.3	81.0	20	80.8	74.0	77.4
	21	81.0	80.0	80.5	21	88.5	68.3	78.4
	22	88.6	76.2	82.4	22	90.4	64.4	77.4
	23	89.5	72.4	81.0	23	92.3	61.5	76.9
	24	93.3	70.5	81.9	24	92.3	59.6	76.0
WO	29	97.1	79.0	88.1	34	93.3	79.8	86.6
	30	97.1	79.0	88.1	35	92.3	80.8	86.6
	31	96.2	80.0	88.1	36	92.3	83.7	88.0
	32	96.2	81.0	88.6	37	91.3	84.6	88.0
	33	94.3	81.9	88.1	38	89.4	86.5	88.0
MO	32	95.2	81.9	88.6	34	91.3	77.9	84.6
	33	94.3	81.9	88.1	35	91.3	78.8	85.1
	34	92.4	83.8	88.1	37	87.5	82.7	85.1
	35	90.5	86.7	88.6	38	86.5	84.6	85.6
	36	89.5	86.7	88.1	39	85.6	84.6	85.1

WS	54	60.0	81.9	71.0	53	48.1	76.0	62.1
	55	63.8	79.0	71.4	54	55.8	72.1	64.0
	56	70.5	75.2	72.9	55	57.7	66.3	62.0
	57	73.3	70.5	71.9	56	61.5	65.4	63.5
	59	79.0	61.9	70.5	57	65.4	60.6	63.0
MS	54	54.3	80.0	67.2	53	41.3	75.0	58.2
	55	61.0	77.1	69.1	55	50.0	66.3	58.2
	56	65.7	72.4	69.1	56	56.7	62.5	59.6
	57	67.6	69.5	68.6	57	61.5	60.6	61.1
	58	69.5	63.8	66.7	58	63.5	56.7	60.1
WO-WS	-23	87.6	83.8	85.7	-22	91.3	74.0	82.7
	-22	87.6	83.8	85.7	-21	91.3	75.0	83.2
	-20	85.7	86.7	86.2	-20	89.4	76.9	83.2
	-19	84.8	87.6	86.2	-18	86.5	79.8	83.2
	-18	83.8	87.6	85.7	-15	82.7	83.7	83.2
MO-MS	-26	93.3	79.0	86.2	-14	77.9	80.8	79.4
	-25	91.4	81.9	86.7	-13	75.0	81.7	78.4
	-24	91.4	81.9	86.7	-12	75.0	81.7	78.4
	-23	89.5	82.9	86.2	-7	68.3	88.5	78.4
	-20	86.7	86.7	86.7	-6	67.3	89.4	78.4

들에서 ST와 J, ST와 FG, 그리고 J와 FG는 $p < .05$ 수준에서 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F-K지수는 J와 FG의 차이만이, MS척도는 ST와 J의 차이만이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자의 경우는, ST와 FG를 각 탐지지표별로 비교하였는데 MS척도를 제외한 모든 탐지지표들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L, K, L+K, WS, MS점수는 ST보다 J가, ST보다 FG가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 1은 MS척도를 제외하면 모두 지지되었다. 가설 2는 F-K, WO, MO, WO-WS, MO-MS점수가 모두 ST보다는 J와 FG에서 더 낮음으로써 완전히 지지되었다. 그러나 각 탐지지표 점수들에서 J와 FG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 3은 F-K지수만

J와 FG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을 뿐 모든 탐지지표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지지되지 못하였다. J는 남자의 자료만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가설 3은 남자에 대해서만 검증되었다.

각각의 긍정왜곡 탐지지표들에서 모든 분류점수들의 적중율을 검토해 본 결과 가장 높은 적중율을 보인 분류점수 5개만을 성별에 따라 각 탐지지표별로 제시한 것이 표 3이다. 이때 적중율의 개념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ST분류율은 ST를 ST로 정확히 분류한 비율을, FG분류율은 FG를 FG로 정확히 분류한 비율을 나타낸다. 각 탐지지표별로 ST와 FG를 가장 잘 구분하는 분류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 L척도는 남녀 모두 6점 이상일 때 ST와 FG를 가장 잘 구별했으며; K척

도는 남자는 14점 이상, 여자는 17점 혹은 18점 이상일 때 각각 78.1%와 72.1%로서 최고의 적중율을 보였다; F-K지수의 경우, 남자는 -8점 이하, 여자는 -5점 이하일 때 적중율이 가장 높았고; L+K지수의 경우, 남자는 22점 이상, 여자는 21점 이상일 때 적중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WO 척도는 남자는 32점 이하, 여자는 36점, 37점, 38점 이하일 때 최고의 적중율을; MO척도는 남자 32점 혹은 35점 이하, 여자 38점 이하일 때 최고의 적중율을 보였다; WS척도는 남자 56점 이상, 여자 54점 이상일 때 최고의 적중율을; MS척도는 남자 55점 혹은 56점 이상, 여자 57점 이상일 때 최고의 적중율을 보였다; WO-WS지수는 남자는 -20점 혹은 -19점 이하일 때, 여자는 -21점, -20점, -18점, -15점 이하일 때 똑같이 ST와 FG를 가장 잘 분류하며; MO-MS지수는 남자 -25점, -24점, -20점 이하일 때, 여자 -14점 이하일 때 적중율이 가장 좋다.

논 의

표 1과 그림 1, 2의 분석을 통해, 긍정왜곡은 거의 모든 임상척도에서 표준반응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이 분명하다. 즉 거의 모든 임상척도에서 ST는 FG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J는 FG와 유사한 형태의 프로파일을 보여주었다. 여자의 경우, 척도 9(Ma)에서 ST와 FG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아마도 여자에게는 활동성이나 적극성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남녀 모두에서, FG는 L은 70 이상, F는 40 이하, K는 60 이상의 V자 형태의 타당도 척도를 보이고 있으며, 척도 5와 9는 가장 높ی 올라가고 척도 0은 가장 낮게 떨어지

는 프로파일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른 신경증 척도와 정신병 척도가 긍정왜곡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J의 프로파일 형태도 다소 완화된 형태이긴 하나 V자 형태의 타당도 척도와 척도 5, 9가 상승하고 척도 0이 낮게 떨어지는 프로파일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프로파일 형태를 참고로 하는 것이 긍정왜곡 탐지를 위해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시사된다.

표 2의 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긍정왜곡 탐지 지표들이 ST와 FG를 잘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자의 경우는 MS척도가 ST와 FG를 잘 구분하지 못했다.

표 3에서 먼저 타당도 척도 관련 탐지 지표들을 살펴보면 L척도가 가장 우수한 적중율을 보였으며, F-K지수와 L+K지수도 80%내외의 적중율을 보여주었다. K척도는 다른 탐지 지표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적중율을 보여주었다. L척도의 분류 점수는 남녀 모두 Wiggins(1959)가 제안한 6 이상의 분류점수와 일치하였다. 참고적으로 L, F, K 3개 타당도 척도에 대해 판별분석을 한 결과 L이 가장 설명력이 있었고, K보다 F가 더 설명력이 있었다. 그래서 F에 대해서도 최적 분류점수를 찾아본 결과 남자는 7점 이하일 때 85.7%의 최고 적중율을, 여자는 8점 이하일 때 80.8%의 최고 적중율을 기록했다. L+K-F지수에 대해서도 최적 분류점수를 찾아봤는데 남자는 12점 혹은 15점 이상일 때 84.3%, 여자는 8점 이상일 때 81.8%의 최고 적중율을 기록했다. 요약컨대 L과 F의 변별력이 꽤 높기 때문에 타당도 척도들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모호, 명백 척도들을 살펴보면, WO와 MO가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WS와 MS는 상당히 저조한 적중율을 보여주었다. 남자보다 여자가 적중율이 더 떨어진 것은 ST집단과 FG집단 간에 점수의 중복(overlap)이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MSO가 WSO보다 우월한 결과를 보이지 못한 것은 MSO가 다소 수정되었으면서도 WSO

8) L척도, K척도, L+K지수, WS척도, MS척도는 분류점수 이상일 때 긍정왜곡 집단으로 구분되면, F+K지수, WO척도, MO척도, WO+WS지수, MO-MS지수는 분류점수 이하일 때 긍정왜곡 집단으로 구분된다.

와 여전히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Wiener가 정의한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MMPI 566문항 전체를 평정했으면서도 Wiener의 모호, 명백 문항에 대해서만 그 결과를 적용시켰다는 점과, WSO는 그 자체로 긍정왜곡 탐지 지표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모든 긍정왜곡 탐지 지표를 대상으로 남자의 ST와 FG에 대해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해본 결과 $D = -1.51 - .19(L) - .04(F-K) + .03(WO) + .03(MO)$ 라는 판별식이 산출되었다. D 값 0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더 작은 값을 긍정왜곡으로 볼 수 있는데, 분류점수 0으로 ST집단을 92.4%, FG집단을 86.7% 정확하게 분류해냄으로써 전체적으로 89.5%의 적중율을 기록했다. 이 판별식을 여자에게 교차타당화 시켜본 결과 ST집단을 93.3%, FG집단을 77.9% 정확하게 분류해냄으로써 전체적으로 85.6%의 적중율을 기록했다. J집단은 이 판별식을 적용해 볼 때 69%가 긍정왜곡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판별식이 높은 적중율을 보이고 있지만 WO와 MO 역시 판별식 못지 않은 적중율을 보여주고 있어 명백문항을 긍정왜곡 탐지 지표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L척도가 판별분석 결과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고 적중율이 우수하므로, 타당도 척도의 채점만으로도 간단하게 긍정왜곡을 탐지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그러나 하나의 지표만으로 긍정왜곡을 탐지해 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프로파일의 형태라든지 여러 긍정왜곡 탐지 지표들의 특징을 참고함으로써 긍정왜곡을 더 잘 탐지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최적 분류점수가 제안되긴 했지만 상황의 필요성에 따라 분류점수를 조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가능한 한 정상반응을 긍정왜곡 반응으로 간주되지 않게끔 하고 싶을 때 ST분류율이 높은 분류점수를 택해야 할 것이다.

긍정왜곡 탐지가 부정왜곡 탐지보다 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본 연구의 긍정왜곡 탐지

은 꽤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입학 시험이라는 특정상황에 대한 것이었다. 또한 타당도 척도와 모호, 명백 척도 관련 탐지 지표에 대해서만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긍정왜곡을 더 잘 탐지할 수 있는 탐지 지표가 개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환, 김재환, 김중술, 노명래, 신동균, 염태호, 오상우. (1989). 다면적인성검사(MMPI). 서울: 한국 가이던스.
- 김중술. (1988). 다면적 인성검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배정규, 안창일, 김중술. (1986). MMPI에서의 부정왜곡에 대한 탐지책략. *서울의대 정신의학*, 11, 48-59.
- 박기환, 이미정, 안창일, 김연. (1990) MMPI문항의 모호-명백도 평정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9권, 제1호, 169-183.
- 이미정. (1983) 만성정신분열증 환자의 역할 취하기 능력에 관하여: MMPI의 정신병 척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범모, 이정균, 진위교. (1965). MMPI 다면적 인성검사. 서울: 코리안테스팅 센터.
- 조선미, 박병관, 안창일, 신동균(1990). MMPI 무선반응태도 탐지척도의 유용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9권, 제1호, 184-191.
- Archer, R. P., Gordon, R. A., & Kirchner, F. H. (1987). MMPI response-set characteristic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1, 506-516.
- Boe, E. E., & Kogan, W. S. (1964). Effect of social desirability instructions on several

- MMPI measures of social desirabili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8, 248-251.
- Cofer, C.N., Chance, J., & Judson, A.J. (1949). A study of malingering on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sychology*, 27, 491-499.
- Dies, R.R. (1968). Detection of simulated MMPI records using the desirability (DY) scal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 335-337.
- Dubinsky, S., Gamble, D. J., & Rogers, M. L. (1985). A literature review of subtle-obvious items on the MMPI.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62-68.
- Edwards, A.L. (1957). *The social desirability variable in personality assessment and research*. New York: Dryden.
- Exner, J.E., McDowell, E., Pabst, J., Stackman, W., & Kirk, L. (1963). On the detection of willful falsification in the MMPI.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7, 91-94.
- Gough, H.G. (1947). Simulated patterns on the MMPI.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2, 215-225.
- Gough, H.G. (1950). The F minus K dissimulation index for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4, 408-413.
- Greene, R.L. (1980). *The MMPI: An interpretive manual*. New York: Grune & Stratton.
- Greene, R.L. (1988). The relative efficacy of F-K and the obvious and subtle scales to detect overreporting of psychopathology on the MMPI.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 152-159.
- Grow, R., McVaugh, W., & Eno, T.D. (1980). Faking and the MMPI.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 910-917.
- Hanley, C. (1957). Deriving a measure of test-taking defensivenes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391-397.
- Harvey, M.A., & Sippelle, C.A. (1976). Demand characteristic effects on the subtle and obvious subscales of the MMPI.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0, 539-544.
- Hiner, D., Ogren, D., & Baxter, J. (1969). Ideal-self responding on the MMPI. *Journal of Projective Techniques and Personality Assessment*, 33, 389-396.
- Hunt, H.F. (1948). The effect of deliberate deception on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performanc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2, 396-402.
- Lachar, D. (1974). *The MMPI: Clinical Assessment and Automated Interpretation*. Los Angeles,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McKinley, J. C., Hathaway, S. R., & Meehl, P. E. (1948).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VI. The K scal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2, 20-31.
- Meehl, P.E., & Hathaway, S.R. (1946). The K factor as a suppressor variable in the MMPI.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30, 525-564.
- Messick, S. (1960). Dimensions of social

- desirabili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4, 279-287.
- Osborne, D., Colligan, R. C., & Offord, K. P. (1986). Normative tables for the F-K index of the MMPI based on a contemporary normal samp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 593-595.
- Seeman, W. (1953). Concept of "subtlety" in structured psychiatric and personality tests: An experimental approach.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8, 239-247.
- Vesprani, G. J., & Seeman, W. (1974). MMPI x and zero items in a psychiatric outpatient 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38, 61-64.
- Wales, B., & Seeman, W. (1968). A new method for detecting the fake good response set on the MMPI.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 211-216.
- Wiener, D. N. (1948). Subtle and obvious keys for the MMPI.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2, 164-167.
- Wiggins, J. S. (1959). Interrelationships among MMPI measures of dissimulation under standard and social desirability instruction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3, 419-427.

A Study of the Faking-Good Response Set on the MMPI
-With an emphasis on the validity scales and the subtle-obvious scales-

Kee-Hwan Park • Chang-Yil Ahn

Korea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detect the faking-good response set effectively on the MMPI in social situations such as applying for a job and counseling. At intervals of one week, 105 male and 104 female college students took the MMPI under the standard instruction(ST), and again under the faking good instruction(FG). College male MMPI records were compared with 129 male MMPI records(J) which were gathered from the public official job entrance examination. In the present study, ten indices were used to detect the faking good response set on the MMPI. These were : L raw score ; K raw score ; F-K raw score ; L+K raw score ; Wiener's(1948) obvious items(WO) ; Wiener's(1948) subtle items (WS) ; Wiener's(1948) O-S score (WO-WS) ; Park, Yi, Ahn, and Kim's(1991) obvious items (MO) ; Park, et al.'s(1991) subtle items (MS) ; Park, et al.'s(1991) O-S score (MO-MS). The MMPI profiles of J and FG were obviously different from that of ST, the profile of J was similar to that of FG. In the MMPI profile of FG, L was higher than 70, F was lower than 40, K was higher than 60, and scale 5(Mf) and scale 9(Ma) were higher than any other scale, scale 0(Si) was lower than any other scale. In discriminating ST and FG for each faking good detection index, the optimum cutting scores which had the highest hit rates were acquired. As a result, except for WS and MS, all detection indices were expected to detect effectively the faking good response set on the MMPI. Compared to Wiener's subtle-obvious scale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faking good detection, Park, et al.'s(1991) subtle-obvious scale showed little difference. Contrary to WS and MS, WO and MO were considered to be valuable as the faking good detection indices.

부록

박기환, 이미정, 안창일, 김연의 수정된 모호-명백 문항

D-O(31문항)

예	아니오
5 23 32 41 43	8 9 46 57 88
52 67 86 104 142	95 107 122 131 152
158 159 182 189 236	154 242 270 271 272
290	

D-S(29문항)

예	아니오
130 138 193 259	2 18 30 36 39
	51 58 64 80 89
	98 145 153 155 160
	178 191 207 208 233
	241 248 263 285 296

Hy-O(26문항)

예	아니오
10 23 32 43 44	3 7 8 9 55
47 76 114 179 186	103 107 128 137 175
189 238	190 192 230 243

Hy-S(34문항)

예	아니오
253	2 6 12 26 30
	51 71 89 93 109
	124 129 136 141 147
	153 160 162 163 170
	172 174 180 188 201
	213 234 265 267 274
	279 289 292

Pd-O(27문항)

예

16 21 24 32 33
 35 38 42 61 67
 84 94 106 110 127
 216 224 244 245 284

아니오

8 20 37 91 107
 137 237

Pd-S(23문항)

예

102 118 215 239

아니오

82 96 134 141 155
 170 171 173 180 183
 201 231 235 248 267
 287 289 294 296

Pa-O(28문항)

예

15 16 24 27 35
 110 121 123 127 151
 157 158 202 275 284
 291 293 299 305 317
 326 338 341 364 365

아니오

111 281 347

Pa-S(12문항)

예

아니오

93 107 109 117 124
 268 294 313 316 319
 327 348

Ma-O(26문항)

예

11 13 21 22 59
 64 73 97 127 134
 156 157 167 194 212
 226 232 233 238 250
 251 263 266 277

아니오

111 119

Ma-S(20문항)

예

아니오

100 109 143 181 222
 228 240 268 271 279
 298

101 105 120 148 166
 171 180 267 289